

나노기술, 쥐꼬리 투자 부실화 우려

TR 6월호, 국내 NT 투자 증가율 6개국 중 꼴찌 ... 타이완에도 뒤져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에 이어 차세대 산업기반으로 일컬어지는 NT(나노기술)에 대한 국내투자 증가속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MIT가 발간하는 <Technology Review>는 최신호(6월호)에서 2004년 국가별 NT 투자액(정부+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3억달러로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타이완에 이어 6위에 랭크됐다고 발표했다.

2003년과 비교한 투자증가율에서도 상위 5개 국가는 100% 이상 투자가 늘어난 반면, 한국은 11% 증가에 머물렀고, 투자 증가속도에서는 10배가량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경쟁국인 타이완은 기업부문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04년 187%라는 기록적인 투자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국가 투자액에서도 한국을 앞섰다.

Technology Review는 상위 5개국은 NT 투자의 3분의2 이상을 기업이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의 시장선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나노기술 시장도 나노소자와 나노소재를 포함해 2004년 100억달러를 형성했으며 2008년에는 3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의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은 “국내 나노기술의 투자증가율이 IT나 BT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모든 기술 분야에 사용될 핵심 나노기술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도 2001년 나노기술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해 10년 동안 1조48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6/01>